안세영 "내가 챔피언이다"

21일 열린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배드민턴대회에서 안세영(19·삼성생명)이 일본의 아카네 야마구치를 꺾고 우승한 뒤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숙적 꺾고 인도네시아 배드민턴선수권 우승

결승서 야마구치 2-0 완파
덴마크·프랑스오픈 패배 설욕
화순군청 정나은 복식 준우승

한국 여자 배드민턴 차세대 에이스 안세영(19·삼성생명)이 라이벌 야마구치 아카네(24·일본)를 꺾고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최정상 자리에 올랐다.

광주 출신 안세영은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2021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야마구치를 2-0(21-17 21-19)으로 제압하고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승부처마다 침착하게 경기를 주도한 안세영의 경기 운영 능력이 돋보인 경기였다. 안세영은 1세트 17-17로 팽팽하게 맞서던 상황에서 내리 4점을 내며 세트를 가져왔다. 2세트에서도 19-19 동점에서 2연속 득점을 내며 승부를 마무리했다.

무엇보다 안세영에게는 지난달 덴마크오픈과 프랑스오픈에서 쓰라린 패배를 안겼던 야마구치에게 완벽하게 설욕한 의미 있는 경기였다.

안세영은 지난달 24일 덴마크오픈 단식 결승전에서 야마구치에 패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31일 프랑스오픈 단식 준결승에서도 야마구치에게 패해 3위에 그쳤다.

2017년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에 이어 두 번째 광주체육중 3학년 때 성인 선수들을 제치고 중학생 국가대표가 된 안세영은 2018년 아이리시 오픈에서 첫 성인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한 뒤, 2019년 뉴질랜드 오픈·캐나다 오픈·아키타 마스터스·프랑스오픈·광주 코리아 마스터스 등 5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며 세계배드민턴협회(BWF)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대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올해 1월 생애 처음으로 출전한 '왕중왕전'인 BWF 월드 투어 파이널에서 정상에 올랐다.

지난 7월 첫 출전한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8강까지 올랐지만 세계 랭킹 2위 천위페이(중국)에 패해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는 김혜정(23·삼성생명)-정나은(21·화순군청)이 마쓰야마 나미-시다 지하루(일본)에 0-2(9-21 11-21)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 호흡을 맞춘 김혜정-정나은은 전날 준결승전에서 대표팀 선배이자 2020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복식 동메달리스트인 김소영(29·인천국제공항)-공희용(25·전북은행)을 2-0으로 꺾는 이변을 일으켜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황대헌 3개 대회 연속 금빛 질주

월드컵 3차대회 1000m 우승
최민정은 여자 1000m 은메달

황대헌이 22일 헝가리 데브레첸 포닉스 아레나에서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3차 대회 남자 1000m 결승에서 힘찬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한국체대)이 월드컵 3차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황대헌은 22일(한국시간) 헝가리 데브레첸 포닉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1-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3차 대회 남자 1000m 결승에서 1분25초425의 기록으로 캐나다의 파스칼 디온(1분25초698)을 제치고 우승했다.

그는 레이스 내내 최하위권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결승선을 1바퀴 남기고 폭발적인 스피드로 경쟁 선수들을 제쳤다.

그는 인코스에 틈이 보이자 그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단숨에 선두 자리를 꿰찼다. 이후 여유 있게 거리를 벌리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1000m, 월드컵 2차 대회 남자 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황대헌은 3개 대회 연속 개인전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여자 1000m 결승에 진출한 여자 대표팀 간판 최민정(간판)은 1분31초789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레이스 초반 뒤에서 기회를 노리다가 마지막 바퀴를 남기고 속력을 끌어올려 3번째로 결승선을 끊었다.

하지만 최민정은 캐나다의 코트니 사라울트가 페널티를 받으면서 최종 2위의 성적을 거뒀다.

부상 여파로 월드컵 2차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던 최민정은 월드컵 3차 대회 개인전에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황대헌, 김동욱(스포츠토토), 박인욱(대전체육회), 곽윤기(고양시청)가 출전한 남자 5000m 결승에서는 6분44초892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 시즌 남자 계주에서 메달을 획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00m 혼성결승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은 레이스 중반 박장혁이 넘어지는 바람에 5위에 그쳤다.

전략 종목인 여자 3000m 결승에서도 최민정, 김아랑(고양시청) 박지윤(한국체대), 서휘민(고려대)이 아쉬운 경기력을 드러내며 4개 팀 중 최하위에 그쳤다.

한국은 쇼트트랙 월드컵 3차 대회를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의 성적으로 마쳤다.

대표팀은 곧바로 네덜란드 도르드레흐트로 이동해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월드컵 4차 대회에 출전한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은 올 시즌 월드컵 1~4차 대회를 합산해 국가별로 배분된다. 한편 네덜란드 여자 대표팀 수잔 슐팅은 이번 대회 여자 500m, 1000m, 1500m 등 개인 종목 3개 종목과 여자 3000m 계주 우승을 싹쓸이하며 4관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신유빈, 탁구 세계선수권 험난한 대진표

3회전서 세계 1위 천멍 만날 듯

'한국 여자 탁구의 미래' 신유빈(17·대한항공)이 첫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계랭킹 1위를 3회전에 만나는 험난한 대진표를 받아들었다.

2021 국제탁구연맹(ITTF) 세계선수권 파이널스가 열리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조지 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21일(현지시간) 남녀 단·복식 대진 추첨이 진행됐다.

대한탁구협회에 따르면 추첨 결과 신유빈은 3회전(32강)까지 살아남으면 '세계 최강' 천멍(중국)을 만나게 된다.

세계랭킹 71위 신유빈은 첫 상대부터 만만치 않다. 2020 도쿄올림픽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낸 33위 수와이얌(홍콩)을 상대한다.

신유빈은 2019년 단체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수와이얌과 한 차례 대결해 0-3으로 진 바 있다.

수와이얌에게 이기면 도라 마다라즈(64위·헝가리)-사라 드뉘트(79위·룩셈부르크) 승자와 2회전(64강)에서 맞붙는다.

신유빈이 2연승하고 천멍이 직행한 2회전에서 '깜짝패'를 당하지 않는다면, 두 선수가 3회전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도쿄올림픽에서 단식·단체전 2관왕에 올랐고, 단체전 세계선수권에서 3차례 금메달, 개인전 세계선수권 단식에서 1차례 은메달을 따낸 천멍은 신유빈에게 넘기 어려운 상대다.

그러나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단장을 맡은 유남규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은 "천멍이 버거운 상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량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잃을 것 없는 신유빈이 적극적으로 달려든다면 해 볼 만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 대표팀의 '에이스' 전지희(14위·포스코에너지)는 반대로 5회전(8강)에야 중국 선수를 만나는, 좋은 대진을 받았다.

남자 단식 대진표 기상도는 '매우 맑음'이다. 한국 선수 4명 중 2명이 결승은 가야 중국 선수를 만난다. 마룽(2위)과 쉬신(3위)이 이번 대회에 불참하는 가운데 판전둥(1위), 왕추친(16위), 린가오위안(7위), 량징쿤(9위) 등 중국 선수 4명이 모두 결승전을 기준으로 한쪽 대진에 몰렸다. /연합뉴스

츠베레프, 메드베데프 꺾고 ATP 최종전 우승

알렉산더 츠베레프(3위·독일)가 남자프로테니스(ATP) 2021시즌 최종전 우승을 차지했다.

츠베레프는 22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니토 ATP 파이널스(총상금 725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다닐 메드베데프(2위·러시아)를 2-0(6-4 6-4)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츠베레프는 2018년에 이어 3년 만에 ATP 투어 시즌 최종전 정상에 복귀했다. 우승 상금은 214만3000 달러(약 25억5000만원)다.

ATP 파이널스는 한 해 동안 가장 좋은 성적을 낸 단식 상위 8명, 복식 상위 8개 조가 나와 우승자를 가리는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다.

츠베레프는 올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은 없고, 프랑스오픈과 US오픈 4강이 최고 성적이었다.

도쿄올림픽 4강에서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를 꺾고 금메달을 따낸 것과 함께 ATP 투어 파이널스 우승을 올해 자신의 하이라이트로 삼게 됐다.

츠베레프는 이번 대회 4강에서도 조코비치를 물리쳤고, 결승에서 메드베데프까지 잡아 이틀 연속 세계 랭킹 1, 2위를 꺾었다.

또 올해 투어에서 59승을 따내 58승의 메드베데프를 제치고 최다승자가 됐다.

2년 연속 이 대회 우승을 노린 올해 US오픈 챔피언 메드베데프는 츠베레프 상대 5연승 행진이 중단됐다. 둘의 상대 전적은 6승 6패가 됐다. /연합뉴스